

## 중고선가 상승, 오리무중 원전과 DSME의 해양

### 코멘터리

#### 업황은 바닥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 ① 신조선가지수는는 지난주에 다시 121p로 1p 하락했지만, 바닥을 짚고 돌아서는 중인 중고선가는 지난주에도 지수가 1p 상승해 82p를 기록합니다.
- ② 탱커 중심의 발주도 계속됩니다. 현대중공업은 Neda로부터 VLCC 2척을 수주했고, Fredriksen은 중국 2곳과 VLCC 2척 발주를 협의 중이고, 한국의 현대중공업과도 곧 VLCC 1+1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업데이트입니다.

#### 시장과 종목에 큰 영향을 미칠 두가지 결정 원전과 DSME의 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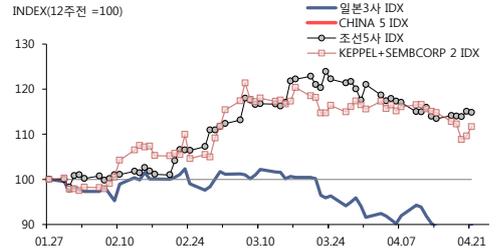
- 에 대한 보도가 잦지만, 결정된 바는 아직 없는 듯 합니다.
- ③ 지난주 "대우조선해양 해양플랜트 접는다", "상선, 특수선만 남긴다"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확실한 최종 결정의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BIG3에서 비롯된 과당 경쟁은 지양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상선보다 해양에서 더 가파른 매출절벽이 기다리고 있지만, 한국의 해양 CAPA를 크게 줄이는 것에 당사는 반대합니다. 다만, DSME의 해양 사업 철수가 확정될 경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투자매력이 크게 돋보일 것입니다.
  - ④ 해외 원전 디벨로퍼 및 제작사들의 실패 때문에, 한국형 원전과 두산중공업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뮤젠 원전의 한국전력 참여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필리핀 바탄원전에 대한 기초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원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합니다. 특히 더민주 문재인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없음"을 강조합니다.

#### 이 불황기에 두가지 신규 투자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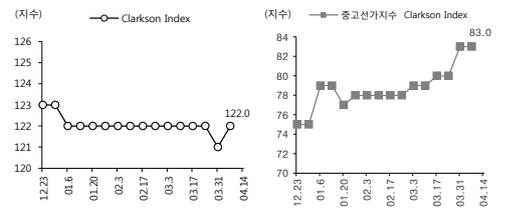
- ⑤ 두산중공업이 세계 최대규모 1.7만톤 단조 프레스를 21일 준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대형 단조품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원전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합니다.
- 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태웅의 제강사업은 최근 8대 선급 인증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제강설비 초도 가동의 효과를 확인했고, 1분기 가동률이 올라가는 구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낼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 대표 차트

▶ 한/중/일/싱 추가 추세: 한국 언더퍼폼



▶ 신조선가 ▽ & 중고선가 ▲ 업황 지속



###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 바닥 지나는 업황

VLCC 발주 계속: NEDA → 현대중공업, Frontline → 중국과 한국  
Clarksons 신조선가지수 1p ▽ & 중고선가지수 1p ▲

#### ▶ BIG2?

구조조정 및 올린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접는다 & 대우조선 다운사이징 착수... '상선-특수선만 남긴다'

#### ▶ 원전?

한수원, '사업재개 검토' 필리핀 바탄원전 참여 논의  
vs 문재인 曰 "신규원전 건설, 노후원전 수명연장 없다, 신재생/가스로 대응" & 홍준표 曰 "원전 줄이고, 신재생 늘린다"

#### ▶ 설비 투자

▲ 두산중공업, 세계 최대 규모 1만7천t '프레스' 설치  
△ 태웅, 제강사업부 8대 선급인증 완료

### ASP & 실적관련(국내외)

#### △ Clarksons 신조선가지수 1p 하락 & 중고선가지수 1p 상승

신조선가지수는 대표 선종 중에서는 오히려 파나마식 벌크선 선가가 \$0.5m 올랐지만, 지수는 1p 하락한 121p 반영  
중고선가지수는 1p 오른 84p를 기록했는데, 파나마식 벌크선이 WoW +17%, 핸디막스도 +3% 상승했고, 핸디막스 탱커도 1% 상승하는 등 탱커선 강세도 지속

▼ 현대중공업 '지체상금 폭탄'... 해군 함정 3척 줄줄이 납품지연

<https://goo.gl/WnDdw>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인도시키지 못하고 있는 3척의 함정에 대한 지체상금만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

1)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14급 잠수함(SS-II) 5번함 '윤봉길함'을 진수하고 2015년 12월까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지만 : 윤봉길함 추진계통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서 수중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인도가 전면 보류

잠수함이 납기일보다 185일 늦게 인도됨에 따라 지체상금만 3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2) 기뢰부설함도 2016년까지 해군에 납품하기로 했지만 시운전이 늦어지면서 납품을 못함

3) 차기상륙함(LST-II, 천왕봉급) 2번함을 지난해까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지만 공정이 지연되면서 인도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대우조선해양도 214급 잠수함(SS-II) 6번함을 지난해까지 납품하기로 했지만 시운전이 늦어지면서 해군에 납품을 못하고 있음

STX조선해양은 유도탄 고속함(PKG)인 17번함을 건조했지만 2013년도에 경남 창원시 조선소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 결국 STX조선해양은 고속정을 다시 건조하면서 제작비 400억대와 지체상금 400억원을 피할 수 없는 처지

▷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올해 1분기 흑자 낼 것"

<https://goo.gl/a42RoC>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17일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해 "1분기 (실적이) 흑자가 될 것 같다"고 말함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업황

▽ 중형 LPG선 중고선가 급락

- 최근 10년 일본선사가 매각한 가스선의 중고선가가, 그 이전 거래에 비해 절반이나 하락

- 2015년 6월 Solvang이 매입한 2005년 건조 중고선가가 \$40m이었는데, 최근 35k LPG선(현대미포조선, 2007년 건조)을 Varun이 \$20.6m에 매입

- 그러나, 중형 LPG선은 거래가 뜸해 가격이 크게 변하는 성격이 있음

- 또한 Varun은 올해 1월 중국 Jiangnan SY와 6척 VLGC를 총 \$420m(척당 \$70m)에 발주했지만, 본계약 연결에 대한 의문이 있음

▽ Polaris 개조 VLOC 추가 크랙 발견설: 사측 부인

- Vale는 한국 Polaris를 통해 1990년대에 건조된 VLOC 18척을 운영 중인데

- Stellar Daisy(1993년 건조) 침몰 이후, 1980년 건조된 Stellar Unicorn과 1992년 인도된 Stellar Cosmo도 Crack이 발견되어서,

- 케이프타운의 Repair 야드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에, Polaris는 이를 부인

▷ 삼강M&T, STX조선의 고성야드 매입

- STX의 고성야드 입찰에서 삼강M&T가 매입: \$87m

- 삼강은 향후 Shiprepair Plant로 활용할 예정

▶ LNG

△ Exceletrate, DSME에 FSRU 신조 1척 확정 골

- 연초에 확보한 차세대 FSRU 옵션 7척 중 첫번째 본계약을 추진: "Actively working"

- 조선사는 비슷한 선형을 연속건조하고 싶어하지만, 현재 단일 사이즈 건조 계획은 없다고 함

- 향후 Exceletrate의 성장은 개조와 신조 모두에서 가능

- 방글라데시의 Petrobangla의 경우 138k CBM이 가장 적합해 1기를 투입: 향후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138k~150k CBM의 개조가 유력

- 동시에 Q-MAX FSRU 신조도 준비

- 시장에 25개~30개 프로젝트가 잡히며, 향후 유지하고자 함

- 방글라데시 프로젝트가 올해 가동을 시작하고, 후속으로 파키스탄, 푸에르토리코도 올해 내에 가동 가능하다고 안내

한국 조선업 수주실

▶ 신조 발주실(뉴스 단계)

▲ Neda → 현대삼호중공업, VLCC 2척 발주

- Lykiardopulo 패밀리라 Neda Maritime은 현대삼호중공업에 VLCC 2척 발주: 2019년 인도  
- 신조선가는 표준선가 \$80m에 Extras 포함 시 \$82m로 알려짐  
- Neda가 앞서 발주한 319k DWT 1척은 2018년7월 인도 예정

▲ Fredriksen, 한국과 중국에 VLCC 발주 협의 중

- Fredriksen의 Frontline은 DHT Holding 인수에 좌절된 가운데  
- 중국의 SWS(외고교 조선)와 New Times SB와 최소 2척의 VLCC 건조를 협의 중이고  
- 이보다 앞서 한국의 현대삼호중공업과도 310k DWT VLCC 1척+옵션1척을 계약  
- Fredriksen은 올해초부터 조선사들과 신조를 협의해왔지만,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전함  
- 신조선가는 현대중공업과 Tier III 스펙에 \$80m~\$82m, 중국과는 \$70m 후반에 계약할 것으로 알려짐  
- 올해초 Fredriksen은 Jinhai HI와 VLCC 2+2척의 LOI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약을 완결하지 못함  
- 또한 2월에는 DSME에서 VLCC 2척을 청당 \$77.5m에 리세일 매입하면서, 2000년산 VLCC를 \$21.5m에 매각한바 있음

한국 및 경쟁국 주요 수주 소식

▶ Clarksons에 신규 기입된 신조 수주건

04월3주(지난주)

①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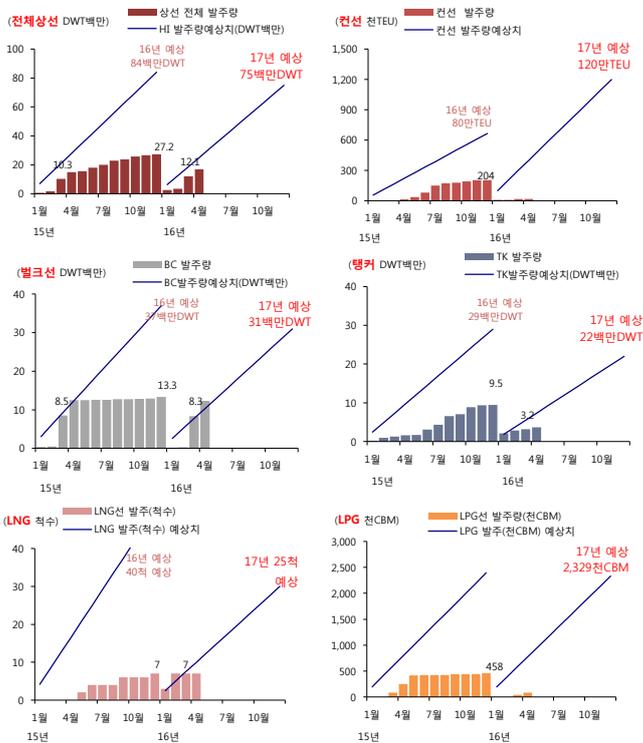
N/A

△ Kyklades → 성동조선, 아프리카 탱커 7척 발주 계획

- Aristides Alafouzos 집안의 Kyklades Maritime은 최대 7척(확정 5척+옵션 2척)의 아프리카 탱커를 성동조선해양에 발주 준비  
- 선가는 \$40m에 총 \$280m 규모 계약, 인도는 2018년말~2019년 중반  
- 이 선박들은 Shell에 옵션 계약기반 발주  
- Tier II와 Tier III 스펙은 미정: Tier III의 경우 II보다 \$1.2m~\$1.5m 높음  
- 수주가 마무리되면 성동조선의 18개월만의 수주 재개이지만  
- 올해 20척을 인도하고 2018년 인도 예정물량이 없어서, 수주를 받더라도 중간에 8개월~9개월의 공백기가 있음  
- 공백기는 삼성중공업의 불력 제작 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예정  
- 성동조선해양은 2016년11월 Vision Tankers와 LR2 수주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음  
- 최근 Kyklades의 행보는, VLCC 2척의 리세일을 추진하다 실패했고,  
- 4척의 노후 탱커선(수에즈막스 3척, 아프리카막스 1척)을 매각해 11척 선대를 보유 중: SHI 건조(2012년) 아프리카막스 5척, HHI 건조(2015년) LR2 4척, 최근 성동조선이 건조한 수에즈막스 2척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b>17년02월4주</b>								
BIG6	Daewoo (DSME)	17.3.2	Unknown	Unknown	LNG	173k cu.m.	2019	2
중국	Jiangsu New YZJ	17.2.28	한국	Pan Ocean	BULK	63k DWT	2018~2019	5
	Shanghai Zhenhua	17.2.22	Unknown	CHEC Dredging Co Ltd	OFF-SUPP	7k GT	2018	2
	Jiangsu Dajin HI	17.2.23	Unknown	Unknown	PTK	7k DWT	2018	1
	COSCO Qidong	17.3.1	유럽	GeoSea N.V.	OFF-SUPP	8k cu.m.	2019	1
일본	Shin Kurushima	17.2.27	Unknown	Unknown	PTK	36k DWT	2018~2019	2
<b>17년03월1주</b>								
BIG6	Hyundai HI (Ulsan)	17.2.28	유럽	Knutsen OAS Shipping	LNG	180k cu.m.	2020	1
중국	COSCO Guangdong	17.3.2	유럽	Lomar Shipping	CONT	2k TEU	2019~2020	3
	Taizhou Kouan SB	17.3.6	중국	Ningbo Yongqwan Shp	PTK	23k DWT	2018	1
일본	Kyokuyo Shipyard	17.3.6	일본	Kyokuyo Shipyard	LPG	8k cu.m.	2018	1
<b>17년03월2주</b>								
BIG6	Hyundai Samho HI	17.3.17	러시아/CIS	Sovcomflot JSC	TK	114k DWT	2018~2019	4
	HHIC-Phil (Subic SV)	17.3.16	유럽	Cardiff Marine	TK	320k DWT	2019	4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7.3.13	일본	Shokuyu Tanker Co.	PTK	4k DWT	2018	1
중국	Dalian Shipbuilding	17.1.31	중국	Shandong Landbridge	TK	308k DWT	2019	3
중국	Jiangsu New YZJ	17.3.10	유럽	Lomar Shipping	CONT	2k TEU	2019	2
	Zhejiang Ouhua SB	17.3.13	유럽	Splithoff	OFF-SUPP	18k DWT	2019	6
	Guangdong Haoyue	17.1.1	중국	Unknown Chinese	PTK	1k DWT	2017	1
<b>17년03월3주</b>								
중국	CSSC Offshore Marine	17.3.24	아시아	CSSC Shipping (HK)	PTK	76k DWT	2018~2019	2
중국	PaxOcean Zhoushan	17.1.12	아시아	Jaya Samudra	LNG	26k cum	2018	1
<b>17년03월4주</b>								
BIG6	Hyundai Mipo	17.3.24	유럽	Solvang ASA	LPG	21k cu.m.	2019	2
<b>17년04월1주</b>								
BIG6	Hyundai Mipo	17.4.4	유럽	Solvang ASA	LPG	21k cu.m.	2019	2
	Daewoo (DSME)	17.4.4	유럽	Maran Tankers Mngt.	TK	318k DWT	2018~2019	3
중국	CSSC Offshore Marine	17.3.31	아시아	Formosa Plastics Co	PTK	50k DWT	2019	3
중국	Jiangsu New YZJ	17.3.30	유럽	Chartworld Shpg.	BULK	82k DWT	2018~2019	4
		17.1.1	유럽	Torvald Klavness	BULK	84k DWT	2018	1
	Jinglu Shipyard	17.4.7	유럽	Chartworld Shpg.	BULK	82k DWT	2018~2019	4
	Jiangsu Hantong HI	17.1.1	Unknown	Carl Buttner	PTK	38k DWT	2018	2
	Xiamen Shipbuilding	17.4.5	유럽	Viking Line Abp	FERRY	3k Pass.	2020	1
일본	Hakodate Dock	17.3.23	유럽	M/Maritime	BULK	34k DWT	2018~2019	2
<b>17년04월2주</b>								
국영	Hudong Zhonghua	17.4.10	유럽	Odfjell ASA	PTK	38k DWT	2020	2
민영	Tsuneishi Zhoushan	16.12.1	일본	Nissen Kaiun KK	CONT	3k TEU	2018~2020	10
일본	Sumitomo (Yokosuka)	17.2.7	유럽	Lundqvist Rederierna	TK	112k DWT	2019	1
<b>17년04월3주</b>								
N/A								

Peer Group 등 Index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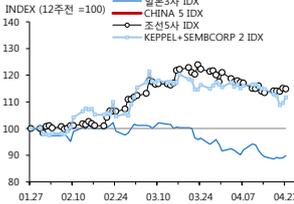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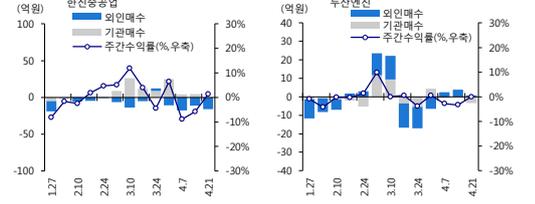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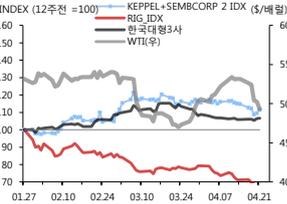
▶ 조선6사 수급



▶ 조선업 한증일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조선 '빅3' CEO, 미국 해양플랜트 박람회 총출동

<https://goo.gl/cQxgKk>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최고경영자들은 다음 달 1~4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박람회(OTC)에 참석할 계획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한 채무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등 현안이 있어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정성립 사장이 OTC 참석을 검토

▷ 구조조정 맞 올린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접는다

<https://goo.gl/cspxlE>

대우조선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443명인 인력을 2018년 상반기까지 9000명 이하로 줄일 계획  
부실의 원인인 해양플랜트사업은 사실상 접는다  
> 기사에 별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 대우조선 다운사이징 착수... '상선·특수선만 남긴다'

<https://goo.gl/xrMBf0>

1) 다운사이징에 대해

한 전문가는 "국내 조선사들의 문제가 매출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두고 거기에 고정비를 맞추다가 매출이 떨어져도 고정비를 줄이지 못하는 데 있다"며  
매출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고 여기 맞춰 사업부문이나 설비, 인력을 대폭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한다고 설명  
다운사이징은 그러나 숙련 인력 또는 핵심 기술인력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23일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설계 인력 등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보상 등 임금체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2) 해양: 안하나? 하나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노사관계 연구본부장은

"조선산업이 천문학적 손실을 보게 된 이유는 경험이 부족한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설계 능력과 고급 용접공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 지난달 24일 "전문학적인 손실을 야기한 해양플랜트는 인도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신 있는 일반 상선과 특수선 부문에 주력하고 무분별한 해양 사업을 자제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강조  
> 상선/특수선에 집중한다고 까지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 해양플랜트 사업평가 가격기준 '5억→3억달러'로 낮춘다

<https://goo.gl/aDXJDF>

해양금융융합센터는 이르면 다음 주 해양금융협의회에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변경

해양금융융합센터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  
평가 기준이 3억달러로 낮아지면 해양플랜트뿐만이 아니라 드릴십부터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해야함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 1분기 수주 226.1% 급증... 'LNG선박 효과'

<https://goo.gl/0nw9K>

올해 1분기 수주실적이 전년보다 226.1% 급증

17일 올해 1분기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26.1% 증가한 7억6300만달러(약 8680억원)를 기록

이 기간 현대중공업은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4척과 LNG선 2척을 수주; 지난해 1분기에는 VLCC 2척과 LPG선 1척을 수주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신규물량 우선 배치로 군산조선소 도크 존치"

<https://goo.gl/7d57za>

16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와 관련

"신규 물량을 우선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존치해야 한다"고 언급

▽ 하이투자증권, 대우조선 부실채권에 골머리

<https://goo.gl/e9884H>

하이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는 400억 원으로 증권사가 보유한 회사채 규모인 1352억 원의 30%에 해당  
하이투자증권의 2016년 연결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164억 원.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에 불과  
은행과 달리 증권사의 경우 충당금을 쌓지 않기 때문에 완충 작용이 없었음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소형 LNG선 2척 수주...5월 계약 체결

<https://goo.gl/eqLZOI>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소형 LNG선 2척의 수주를 확정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통영~제주 간 LNG 운송을 위해 실시한 해운선사 입찰에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참여한 대한해운을 운송선사로 선정  
삼성중공업이 건조할 LNG선은 7천500m³급 소형 LNG선이며, 한국형 LNG 화물창(KC-1)을 장착하는 선박  
이번에 수주한 LNG선 중 1척은 LNG병커링 겸용 선박으로 건조될 예정: 납기는 각각 2019년 5월과 12월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해양, '운명의 날'...사채권자집회 오전 10시 시작

<https://goo.gl/Avlyvq1>

사채권자 집회는 서울 다동 대우조선빌딩에서 17~18일 이틀에 걸쳐 총 5차례 열릴 예정  
이날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오후 5시와 1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 진행  
채무조정안을 통사시키려면 각 집회마다 참석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  
국민연금(3900억원)이 가장 많고 우정사업본부(1600억원)  
사학연금(1천억원), 신한(900억원), 수협(600억원), 중소기업중앙회(4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순  
개인투자자들의 보유액은 약 1300억원 규모

△ 대우조선 CP 채무재조정도 완료..."100% 동의 받아"

<https://goo.gl/6nQQek>

20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018년 4월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 총 2천억원 전체에 대해 채권자 100% 동의를 받는 절차가 끝남  
회사채와 달리 CP는 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 변경약정서를 개별 체결해야 하며 채권 전체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해서 18일 회사채 채무재조정이 끝난 뒤 이틀이 걸림  
이날 회사채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법원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인가가 나는데로 채권단으로부터 2조9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게 될 전망

▷ 대우조선 사장 "소난골, 최선이든 최악이든 손실 안크다"

<https://goo.gl/CcJNUF>

1조 원이 묶이는 바람에 이번에 유동성 부족의 원인이 된 앙골라 소난골 드릴십 2기와 관련,  
베스트(최선)이든 워스트(최악)이든 회사가 입을 손실은 크지 않다고 설명  
베스트 시나리오) 3분기에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인도  
: 현재 소난골이 오일메이저사와 진행 중인 차터(용선주)와 O&M(소난골이 지분 투자할 특수목적회사를 관리할 운영사-Operation and Management) 협상 경과에 대해 설명  
최악의 시나리오)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협상이 결렬돼) 계약 취소가 됐을 경우 회사가 만들던 제품을 중고선으로 매각해 손실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를 상정  
다만 "실제로 소난골 손실을 2016년 결산에 이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회사가 입을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민간인 중심 위원회가 대우조선 경영관리한다

<https://goo.gl/sOcfcl>

18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경영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대우조선이 세운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설명  
작년 말까지 1조 8000억원(34%)에 해당하는 자구 계획을 이행하는 데 그침

▷ 국민연금 등 11곳,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첫 소송

<https://goo.gl/stjsq4>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과 외부 감사인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가 아직은 만기가 되지 않아 아직 가액은 적다"면서 "후후 실질적 손해가 산정되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추후 최소 출자전환 물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민사법상으로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안 수용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다는 평가  
앞서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 임종룡 "대우조선 내년 말 M&A"

<https://goo.gl/EtAyuW>

임 위원장은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단단한 회사가 된다면  
빅3를 빅2로 만드는 전략을 포함한 조선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M&A를 통해 내년 중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겠다"며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쳐 몸집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선 주인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

▶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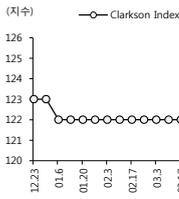
▷ 성동조선 채권단 "인력 절반 줄이면, 원가 2~3% 이하 수주 허용 검토"

<https://goo.gl/JGXJ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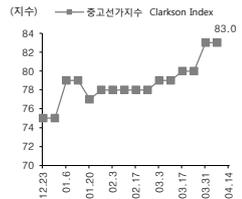
수출입은행, 농협,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이뤄진 성동조선 채권단은 현재 간접비와 고정비를 축소할 경우 기존 수주 원칙을 완화해 신규수주를 지원할 방침  
성동이 보유한 도크는 총 3개로, 이중 1개는 매각했고 1개는 잠정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성동조선의 간접비 축소는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밖에 없음  
한때 2,400여명이었던 성동의 인력은 현재 1,500여명: 이중 500명은 유급휴직 중  
성동조선의 원가경쟁력을 대한조선 수준으로 맞춰야 신규 수주 시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대한조선의 인력은 현재 약 550~600여명 수준으로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은 12척  
그러나 아직 건조 중인 선박 15척을 보유하고 있어 납기일에 맞춰 건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남은 일감도 이르면 10월 모두 인도되고 도크가 비게 됨  
성동조선은 2010년 4월 수출입은행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총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  
: 2015년 9월에는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맺고 기술부터 공정단계까지 모두 재정립돼 원가경쟁력을 일정 수준 확보했지만 신규수주가 뒷받침해주지 못함  
2400여명이었던 성동조선 인력은 1500명으로 줄었고 남은 인력 중 500명은 유급휴직에 들어간 상황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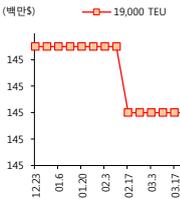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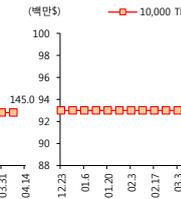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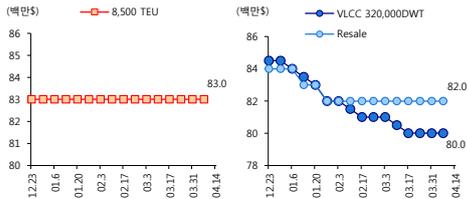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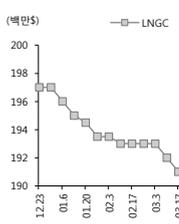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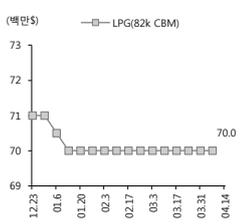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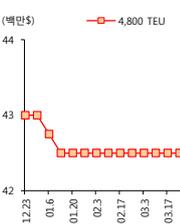
▶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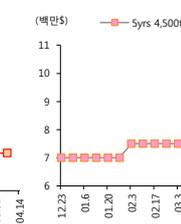
▶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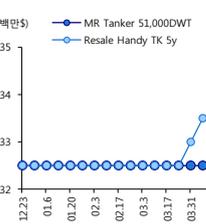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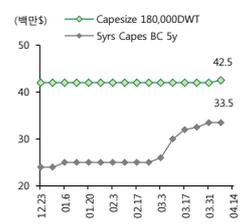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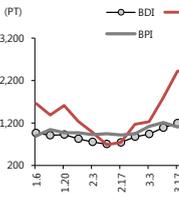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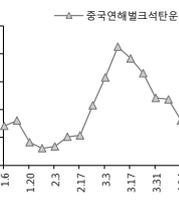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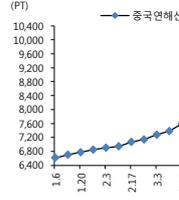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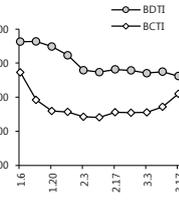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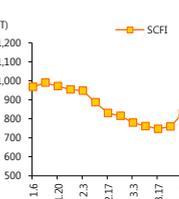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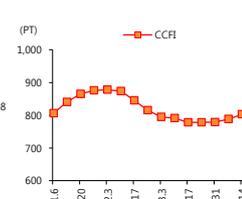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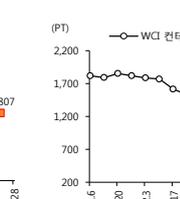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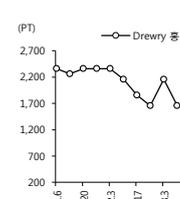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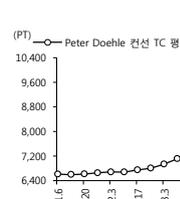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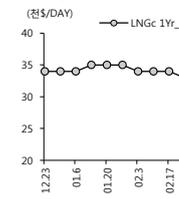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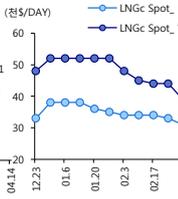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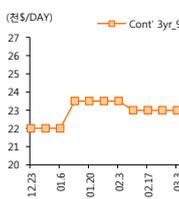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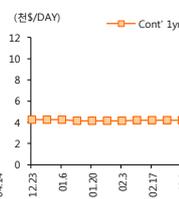
▶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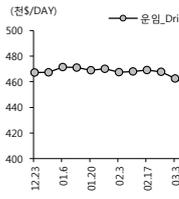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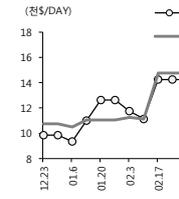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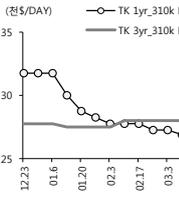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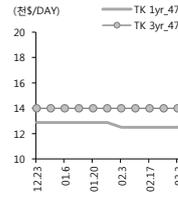
▶ 벌크선 - 케이프



▶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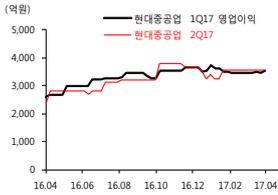


▶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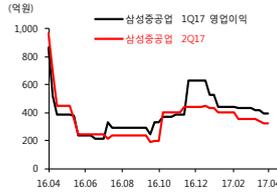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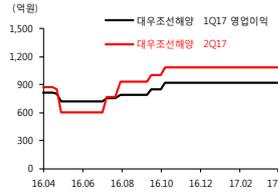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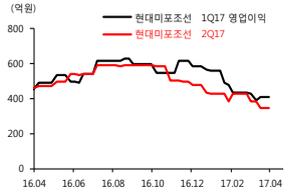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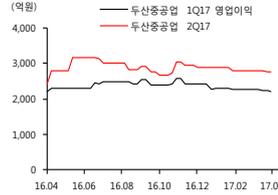
▶ 대우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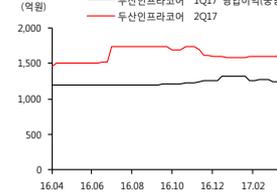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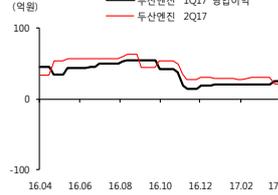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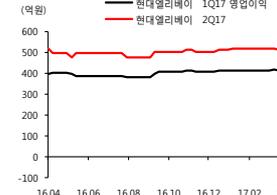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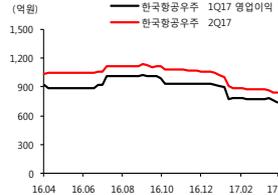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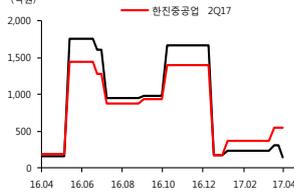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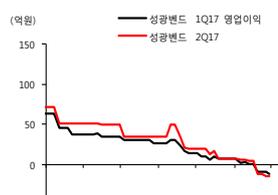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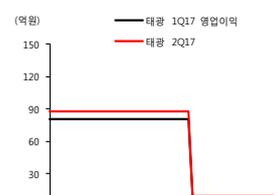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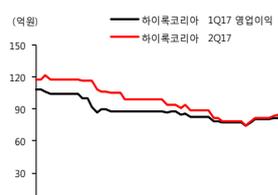
▶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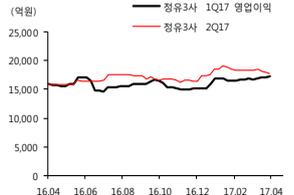
▶ 태광



▶ 하이록코리아



▶ 정유3사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3.18	17.03.25	17.04.01	17.04.08	17.04.15	17.04.21	2달전 대비	4주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1,199	10,731	11,092	11,167	11,206	10,703	10,603	13,337	13,173	13,173	18%	23%	12.5	165,000	
	삼성중공업	400	254	269	235	260	264	257	281	283	281	19%	7%	37.4	10,500	
	대우조선해양	565	565	1,372	1,372	1,372	1,372	1,372	1,372	1,372	1,372	0%	0%	32.6	44,800	
	현대미포조선	6,837	6,272	5,759	5,463	5,627	4,636	4,498	4,027	4,027	3,878	-29%	-16%	21.7	84,100	
	한진중공업	2,643	1,516	978	454	454	233	233	157	157	108	-76%	-54%	31.3	3,375	
두산	두산중공업	2,078	2,058	1,997	1,798	1,739	1,716	1,693	1,683	1,683	1,490	-17%	-13%	15.8	23,500	
	두산인프라코어	797	850	900	808	778	753	753	788	785	785	-3%	4%	12.0	9,400	
	두산엔진	234	82	50	167	188	265	265	265	283	409	144%	55%	8.0	3,260	
기계	현대엘리베이	5,909	5,775	5,782	5,703	5,703	5,703	5,556	5,598	5,597	5,580	-2%	-2%	10.9	60,600	
	한국항공우주	3,280	3,271	3,139	2,646	2,619	2,619	2,622	2,592	2,565	2,560	-3%	-2%	24.5	62,800	
피팅	성광벤드	288	252	197	198	106	106	49	49	38	-27	악전	악전	-380.5	10,200	
	태광	1,125	223	206	206	189	189	189	189	189	189	-8%	0%	46.6	8,800	
	하이록코리아	2,130	1,961	1,951	1,888	1,910	1,910	1,895	1,895	1,890	1,913	1%	0%	11.3	21,550	
정유	SK이노베이션	21,050	21,124	22,296	22,031	22,552	22,500	23,036	23,408	22,700	22,841	4%	2%	7.1	161,500	
	GS	8,329	8,086	8,726	8,857	9,315	9,315	9,318	9,340	9,430	9,437	7%	1%	6.1	57,600	
	S-Oil	11,079	10,794	10,954	11,270	11,455	11,378	11,126	11,073	10,828	10,833	-4%	-5%	8.9	96,10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3.18	17.03.25	17.04.01	17.04.08	17.04.15	17.04.21	2017	2018	2017 PB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235,133	235,152	237,117	231,983	231,775	229,562	229,672	310,342	309,552	309,552	4%	4%	0.5		
	삼성중공업	28,963	17,335	17,771	17,381	17,225	17,344	17,336	17,519	17,500	17,300	2%	2%	0.6		
	대우조선해양	5,611	5,611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42%	-35%	13.7		
	현대미포조선	110,616	112,069	112,593	110,178	108,677	107,861	108,036	108,798	108,798	109,721	4%	2%	0.8		
	한진중공업	17,310	16,423	15,317	11,120	11,120	10,803	10,803	10,447	10,447	11,076	1%	6%	0.3		
두산	두산중공업	33,802	33,666	33,514	31,654	31,937	31,780	31,023	31,116	31,093	31,093	5%	7%	0.8		
	두산인프라코어	11,512	11,530	11,498	10,937	10,800	10,723	10,481	10,527	10,572	10,572	7%	9%	0.9		
	두산엔진	11,087	8,876	8,547	7,897	7,763	7,640	7,640	7,640	7,700	7,700	5%	0%	0.4		
기계	현대엘리베이	37,320	37,111	36,915	38,058	38,876	38,876	41,713	40,541	38,291	38,291	15%	14%	1.6		
	한국항공우주	17,161	17,128	16,935	16,625	16,591	16,591	16,591	16,535	16,511	16,478	16%	17%	3.8		
피팅	성광벤드	16,642	16,617	16,592	16,603	16,496	16,496	16,528	16,528	16,536	16,529	0%	2%	0.6		
	태광	18,024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5		
	하이록코리아	24,002	23,422	23,495	23,495	23,868	23,868	23,983	23,983	24,153	24,035	8%	8%	0.9		
정유	SK이노베이션	203,075	203,444	204,723	199,382	199,276	199,276	200,021	201,001	199,929	200,215	11%	11%	0.8		
	GS	81,683	81,268	81,475	80,926	81,106	81,106	81,106	81,106	81,693	81,717	12%	12%	0.7		
	S-Oil	63,458	63,225	63,247	63,123	62,898	62,898	61,737	61,217	61,480	60,831	18%	18%	1.6		

출처: Dataguid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두산인프라코어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을



기계 업종 뉴스

두산기계3사 등

▶ 홍준표 "원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펼 것"

<https://goo.gl/al0npi>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5일 "원자력발전소 짓는 일을 지양하겠다"고 말 이어 "가능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강조

▶ 문재인 "신규원전 건설·노후원전 수명연장 없다"

<https://goo.gl/CvdrV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2일 "신규원전은 더 이상 없다. 노후원전 수명연장도 없다"는 말로 집권 시 '원자력 제로' 정책을 펼 것임을 분명히 한 울산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탈핵·탈원전으로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소비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

▲ 두산중공업, 세계 최대 규모 1만7천t '프레스' 설치

<https://goo.gl/GcOsuI>

세계 최대 규모인 1만7천t 프레스를 설치하고 지난 21일 준공식: 2014년부터 자체 기술로 직접 프레스 제작에 나서 지난 3일 상업운영에 성공 높이 29m, 너비 9m로 성인 남성 24만 명이 동시에 누르는 것과 같은 힘, 4개 기둥(4 column) 방식의 프레스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중형차 5만여 대의 무게와 맞먹는 연간 8만t의 단조품을 생산  
지난 35년간 운영해온 1만3천t 프레스를 1만7천t으로 대체함에 따라 단조공장 규모도 기존보다 34% 늘린 7만3748㎡로 증축 이로써 일본, 이탈리아, 중국 등 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향후 차세대 신형 원전설비 등 발전 및 산업 분야의 초대형 단조품 시장 공략을 가속화 기대  
1만7천t 프레스와 함께 4천200t, 1천600t 프레스 등 총 3기의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4만t의 단조품 생산능력을 보유

▶ 두산, 920억 규모 두산중공업 BW 매수

(주)두산은 21일 두산중공업(034020)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수한다고 공시

△ 두산엔진 담보부사채, 한 단계 상향된 'A-1: 창원공장 담보

<https://goo.gl/39FVZ0>

두산엔진이 발행 예정인 1300억 원 규모 담보부사채가 'A-등급: 창원 공장 담보로 한국신용평가는 두산엔진의 담보부사채에 대해 무보증사채(BBB+) 보다 한 단계 높은 'A-'등급을 부여: 등급전망은 '부정적'을 유지 오는 26일 2년 만기 담보부사채 1300억 원을 발행 예정: 공모 900억원 + 사모 400억원, 10월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차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

△ 한수원, '사업재개 검토' 필리핀 바탄원전 참여 논의

<https://goo.gl/rHIEQd>

30여년 만에 사업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필리핀의 바탄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지난 18일 경주시 본사를 방문한 필리핀 에너지부 대표단과 바탄 원전 건설이 다시 시작될 경우 한수원의 참여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고 19일 밝힘 바탄 원전은 1976년에 착공했으나 국민적 여론이 악화하면서 완공 직전인 1984년 공사가 중단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리핀 정부는 최근 에너지부 산하에 신규원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네페오(NEPIO)를 설립해 사업 재개를 검토 바탄 원전은 고리2호기와 같은 원자로 모델을 쓰고 있어서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면 한수원의 참여가 기대 필리핀 대표단은 회의 후 고리2호기, 원자력 환경공간,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자력 산업을 방문

한진중공업

▽ '공사 나눠먹기' 담합 건설사 무더기 적발...과징금 702억 부과

<https://goo.gl/6dt2I3>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담합을 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4개사는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고, 이후 메신저(네이트온)를 통해 담합실행에 필요한 투찰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가격을 결정 현대건설에 대해 가장 많은 과징금(216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KCC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각각 163억3000만원, 161억100만원, 160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기타 기계

### ▲ 현대건설기계, 러시아서 228억원 규모 초대형 굴삭기 수주

<https://goo.gl/Gskc7f>

최근 러시아에서 총 2000만달러(약 227억6000만원) 규모의 초대형 굴삭기 36대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  
수주한 장비는 80톤급과 120톤급 초대형 굴삭기로 이달부터 공급돼 러시아 전역의 광산 개발지역에 투입  
2012년부터 5년간 연 평균 30여대의 초대형 굴삭기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에서만 36대를 수주, 광산용 대형 굴삭기를 주력 제품군으로 분류  
회사 관계자는 "80톤 이상의 초대형은 일반 건설장비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이 요구돼 그동안 CAT터필러, 고마쓰 등이 독점해왔다"며  
120톤급 초대형 굴삭기는 국내에서 현대건설기계가 유일하게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설명  
현대건설기계는 세계 140개국 540여개의 딜러망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의 현지 해외법인 보유

### △ 2층 고속열차-화물열차 올해 첫선 보인다...시험운행 시작

<https://goo.gl/ldr2nG>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국형 2층 고속열차(KTX)가 오는 8월께 제작돼 연내에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  
현대로템은 오는 8월께 객실 열차 2량을 출고할 예정. 차량이 나오면 철도기술연구소는 시험계측과 주행 안전성을 평가하고,  
코레일은 11월까지 KTX 산선에 2층 객실 열차를 연결해 시험운전  
현대로템 등 3개 기관은 상용화 기술개발을 마치면 60여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23년께 2층 KTX를 실제 운행할 계획  
2층 고속열차의 장점은 좌석 공급량  
1개 열차당 좌석 공급량이 기존 KTX-산천보다 4배가량(363→1천404석) 향상되며, KTX-1보다 50% 이상(931→1천404석) 많은 최대 1천400명 이상 수송

### ▷ 현대로템 스마트 전동차, 부산 1호선 연장 다대구간 달린다

<https://goo.gl/YGNwxZ>

부산교통공사 주최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개통식을 개최  
연장 다대구간은 서부산 지역인 신평역-다대포 해수욕장역을 연결하는 6개 역사 총연장 7.98km  
지난 2013년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수주해 작년 3월 납품 완료한 부산 1호선 전동차 48량(8량 6편성)이 투입되며  
+ 지난해 3월 부산 1호선 전동차 40량(8량 5편성)을 추가로 수주해 2018년까지 모두 납품할 예정  
운영에 투입되는 현대로템 전동차는 차량 내외부 환경에 따라 전동차 내 조도, 공기질, 방송 음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전동차'

### ▷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건설 계획 속속 수립

<https://goo.gl/nz5Lst>

스코틀랜드는 지난 2주간 두 건의 별도 프로젝트를 포함, 최대 92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건설 계획을 허가  
아일랜드 개발업체 갤렉트릭(Gaelectric)과 프랑스 부유식 풍력업체 이데올(Ideol)은  
지난주 30MW 용량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해상에 부유식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합의  
BNEF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세계에 약 237MW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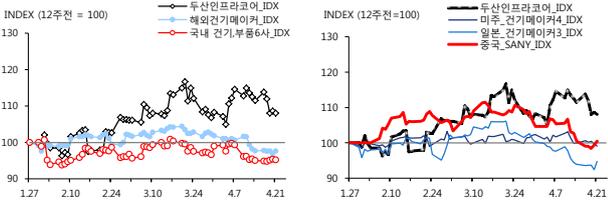
### △ 태웅, 제강사업부 8대 선급인증 완료

<https://goo.gl/wsAtJ2>

태웅은 제강사업부가 최근 핵심 선급인증(ABS, LR, DNVGL, KR, NK, CCS, BV, RINA)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  
지난해 9월부터 선급심사를 준비해왔고, 올 초 각 선급공장 심사를 실시해 지난달 5일 전체 선급인증을 취득  
단조사업부는 1985년 선급인증을 받았었음  
태웅은 지난해 10월 제강사업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11월 제강공장 준공식을 통해 본격 가동

건설장비

▶ 두산인프라코어 vs Global Peer vs 한국 부품 ▶ 건설장비 메이커 Global Peer



건설장비 수급

▶ 건설장비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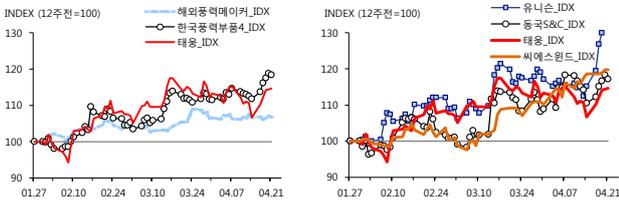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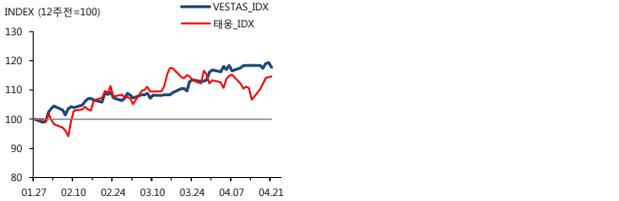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5사 vs Global Peer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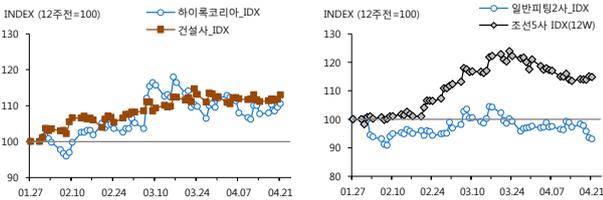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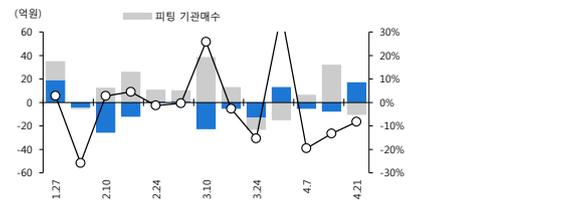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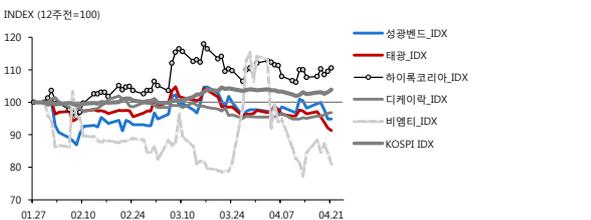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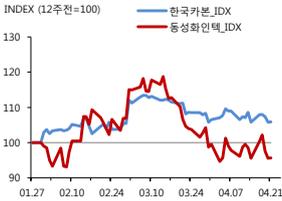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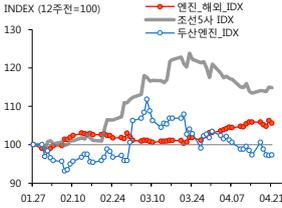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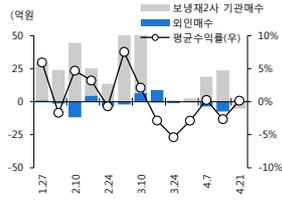
##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 엔진3사



##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재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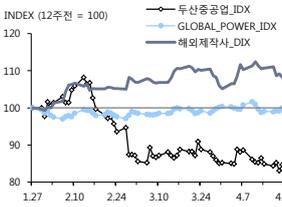


▶ 두산엔진



##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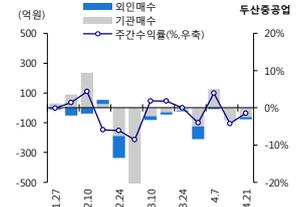


## 발전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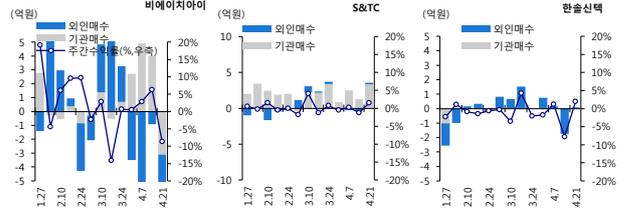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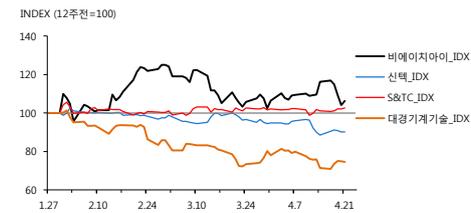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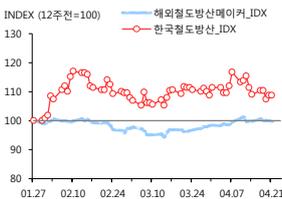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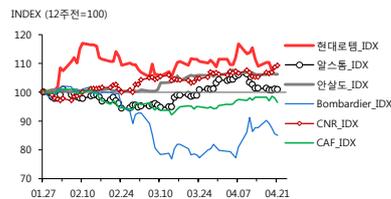


##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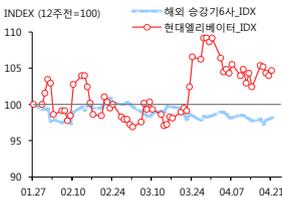


##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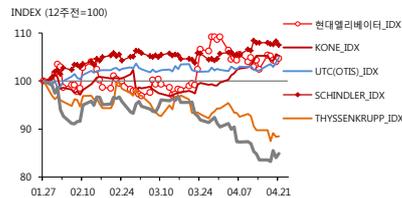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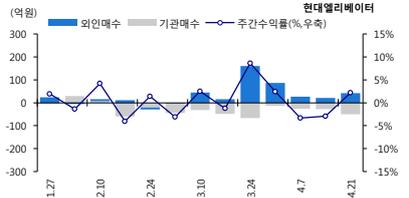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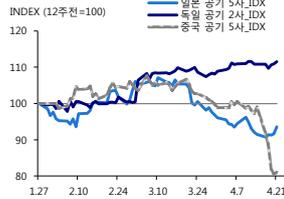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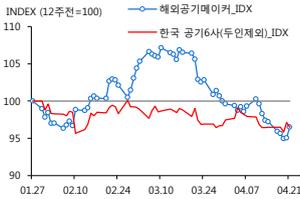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공작기계

▶ 두산인프라~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조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4년5월12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3-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7.3 %	12.7 %	-